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67 호 현대불교
2021년 12월 8일(음 11월 5일) 수요일 / 불기 2565년

단단한 믿음으로 세세생생 이 중세계의 통속에서 벗어나십시오

(지난 호에 이어서)

이 도리를 공부하는 거요, 사실 따지고 본다면 엄청난 공부입니다. 그거를 느껴 보지도 못하고 들어 보지도 못하고 맛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니깐 역대 조사들도 아마 속으로는 팔짝팔짝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쩝니까, 그거. 그러니까 턱 놔 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지냈겠죠. 허허허. 깡통은 깡통끼리 살기 때문에 왈가닥왈가닥하고 살 거고, 금은 금대로 살기 때문에 빛이 있을 거고 '아이고, 그대로 사는 거지 어쩌겠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계는 체로 치는 거와 같다 이랬어요. 상세계로 올라가느냐, 하세계로 떨어지느냐가 달려 있죠.

그리고 지옥이 따로 없다 이런 얘기죠. 지옥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독사다' 그러면, 독사같이 살았으면 독사의 몸을 지니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자동적인 인과가 그렇게 무섭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살던 의식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다 그 독사의 모습을 가졌으니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입니다.

옛날에 무당들이 칼을 들고 뭐랬느냐 하면 바가지에다 죽을 담아 가지고 끼얹으면서 칼을 던지면서 하는 소리 좀 보세요. "썩 물러가거라!" 하하하. "썩 물러가지 않으면 밥내 국내도 맡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러고 칼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사람한테 귀찮게 굴고 그렇게 한다면 지옥으로 떨어져서 땅속의 벌레가 되느니라 하는 소립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도 그걸 모르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깐 이 세상에 경찰서가 있고 유치장이 있고 감옥소가 있듯이 지옥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바로 가서 그대로 짐승이나 벌레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무슨 감옥소가 따로 있고 천당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이 그냥 지옥이고, 여기에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고 이런 것이죠.

이 사람이라는 컴퓨터는 이 자체에 여러 가지가 한데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신통하면 벌써 컴퓨터에 거기 붙어 있는 거, 사진기라든가 또는 탐지기라든가 또 뭡니까? 저 통신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부착이 돼 있습니다. 이 망원경 하면은 '천안통' 이렇게 합니다. 천안통, 타심통 또 신족통, 천이통, 이렇게 여기 부착이 돼 있는 거죠. 또 '숙명통' 하고 여기 이렇게 한데 부착이 돼서 돌아가니까, 이거는 뭐, 사대 팔방으로 이 허공에 전부 그냥 조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깔축없이 자기가 남한테 욕을 했으면 욕한 것이 입력이 돼서 욕을 또 먹게끔 입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모든 거를 주인에게 맡기세요. 주인이 하는 거지 자기 육신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 하면 텔레비전 속에서 나오지 텔레비전 상자에서 나옵니까? 그렇죠? 텔레비전 상자가 텔레비전이 아니고, 텔레비전 오장육부가 바로 텔레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한데 합쳐서 모두 부합이 돼 가지고야 나오지, 부합이 되지 않으면 선 하나만 끊어져도 안 나와요.

그러니 사람도 역시 텔레비전과 같다. 그러니 텔레비전 상자를 믿지 말고, 텔레비전 속의 그 모두를 한마음으로 믿어라. 스위치만 누르면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하는데, 그거를 다 한꺼번에 용도에 따라 볼 게 있으면 보고, 보기 싫은 건 그냥 누르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거기만 믿어야지 어떻게 상자를 믿습니까? 내 육신은 그 오장육부의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관리인이죠.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관리인. 그와 마찬가지로 오장육부의 그 모든 의식들은 바로 한마음을, 한마음을 중시하고 들어가거든요.

표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구가 그렇게 돌아다녀도,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허허. 아는 분 있다면 손 들어 보세요,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하하하.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신도1(남) '알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게, 모르는 게 아는 게 아닙니까?

큰스님 하하하. 그러니까 이 인간 속에 들어 있는 세포 하나하나의 의식들이 이 인간이 어디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고 알려 줌으로써, 믿음으로써 '아, 이렇게 다니는 것도 나구나.' 그러니까 자기 손가락을 자기가 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진실히 믿어서, 병이 낫고 안 낫고 그걸 떠나서, 또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믿어야 합니다. 진짜 자기를 그렇게, 수억겁을 통해 쫓고 쫓기면서 진화를 시키고 그랬던 것도, 쫓고 쫓겨 봐야 그게 마음이 발전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공부로 알라. 어떠한, 왕창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믿는 것만은 '허, 무너지게 또 했군.' 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웃고 쳐다본다면, 그 대치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믿지 못하면 아예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하고 버리는 거나 한가지입니다.

자기 자성신을 진짜로 믿어야지, 어째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자성신을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이 세상에 뭐 믿을 게 있겠습니까? 대신 죽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아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효자 효부다 하더라도, 부부지간이 아무리 정이 좋다 하더라도 대신 똥 눠 주고, 대신 아파 주고, 대신 죽어 주고, 대신 잠자 주고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로 자기를 자기가 믿어서 모든 사람이 한 가정이라도 밝게 살 수 있게끔 자기가 능력을 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남) 저는 옛날에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시심마' 라는 화두를 들고 참선을 했습니다. '부모가 나기 이전에 내 참 얼굴이, 내 참마음이 무엇인가?' 하고 간절하게 참선을 했는데, 그때 가을이라 어디론가 가고 싶고 또 뭐, 쓸쓸하고 세월의 덧없음도 느끼면서 무상이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 때부터 좌선을 시작을 해 가지고 어느 때는 저녁 한 삼경이 되었습니다. 잠이 와 가지고 깜박 조는 그 순간에 나는 깨어 있고 내 의식이 저 온 허공 간에, 온 우주에 꽉 찬 느낌이 들면서 그것을 떨리고 희열에 찬 마음으로 감지를 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생각에 불과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흔히 잠이 들면 아무것도 없고 캄캄해야 되는데 그 잠이 드는 그 순간에 깨어 있고 또 내 속에는 또 하나의 나가 있구나! 그 정도는 체험을 했는데 불 속에 연꽃이 피는 소식과 개미가 수미산을 업어 가는 도리를 알고 싶고, 또 옛날 견딜 수 없는 고독감에 소나무 등걸을 쓸어안고 "아빠"라고 나직이 되뇌었던 그때 그 아빠는 길 없는 길을 인도를 했는지 확연히 그거는 모르겠고요. 저는 아무것도, 내면의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이건 길 없는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파멸의 길을 인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절망에 저 무의 심연으로 몸을 던지려는 순간, 강과 나와 하나가 되었던 그때, 강이 나였고 내가 강이었고 그 흐름이 나였고 내가 흐름이었던 주객일여가 되었던 그때, 캄캄한 산중에 어디선가 소쩍새 우는 소리가 슬피 들릴 때, 바람이 간간이 불어서 온 나무숲을 뒤흔들 때, 무릎을 치면서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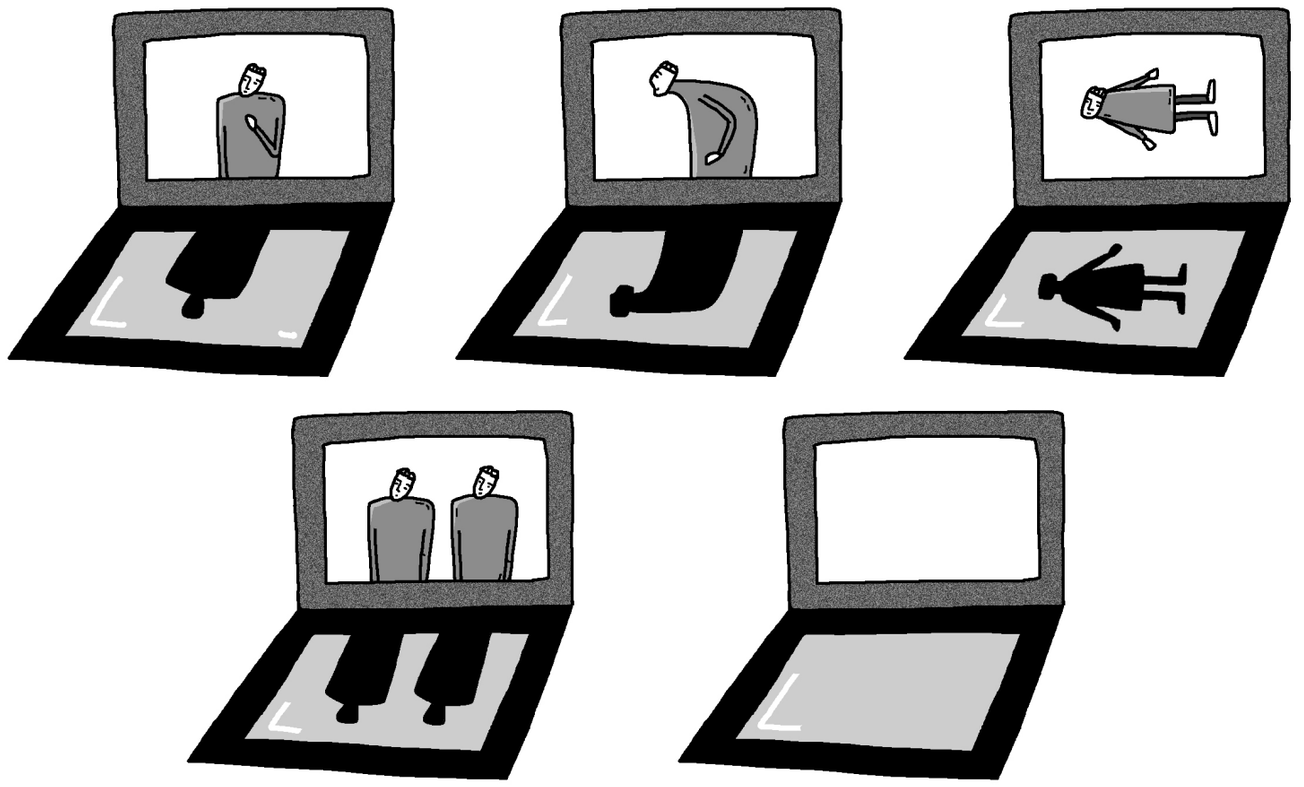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